

광주 AI융합대학생, 캐나다서 선진 AI 연구·교육

사업단-국립 장학재단 협약

마이타스, 최대 36주 비용 지원

광주 AI 혁신 생태계 기대

전남대·조선대·호남대학교 등 광주 AI(인공지능)융합대학생들이 인공지능 교육 선진지인 캐나다에서 AI 분야 전문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일 인공지능융합사업단(AI 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 호남대 회의실에서 AI 사업단과 캐나다 국립 장학재단 마이타스(Mitacs), 전남대·조선대·호남대학교는 국제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행사에선 AI사업단과 마이타스, 전남대(에너지), 조선대(헬스케어), 호남대(자동차) 등 광주 AI융합대학들간 국내 AI 기업 및 인재의 글로벌 진출 지원 및 공동 연구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들 3개 AI융합대학은 광주지역 특화 산업인 에너지, 헬스케어, 자동차 3개 분야와 인공지능 원천기술 1개 분야의 기업 수요를 중심으로 해당 분야와 인공지능 융합 전공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 참여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투입이 가능한 AI 융합 실무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Mitacs·AI 융합대학 업무협약



김준하(가운데)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과 캐나다 국립 장학재단 '마이타스'(Mitacs)·전남대·조선대·호남대학교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호남대학교 회의실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 있다.

협약에 따라 마이타스의 '글로벌링크 연구 인턴십'과 '글로벌링크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AI융합대학 학생들은 최대 1만 2000달러를 지

원받고, 캐나다에서 최장 36주간 AI 분야 연구·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또 캐나다 현지 교수 지도에 따라 AI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며, 한 프로젝트 당

최대 5명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마이타스는 캐나다 비영리 국립 장학재단으로 캐나다 학계, 민간 산업 및 정부와 협업을 통해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캐나다 117개 대학교 제휴, 7000여 개의 파트너, 5만건 이상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서 AI사업단은 지난 6월 캐나다를 방문해 퀘벡주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한 캐나다 최대 규모 스타트업 커뮤니티 네트워크인 마스 디스커버리 디스트릭트,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몬트리올 알고리즘 러닝연구소(MILA) 등 캐나다 내 AI 핵심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며, 지난 9월엔 세계 최대 딥러닝 분야 연구기관 중 하나인 캐나다 몬트리올 알고리즘 러닝연구소인 '밀라'(MILA) 대표단이 광주를 찾아 AI사업단과 AI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준하 AI사업단장은 "캐나다 국립 장학재단 '마이타스'의 GRA·GRI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지역 AI융합대학생들이 캐나다에서 AI분야를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이라며 "캐나다의 AI 분야 교육 교류 협력을 통해 유망한 AI 전문 인력이 배출되고, AI 산업 분야에 포진돼 광주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수은함유 의료기기 848점 거점 수거 일관 처분

광주시는 "의료기관 등에서 자체 보관 중이던 수은함유폐기물을 일괄 수거해 전량 폐기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지역 내 의료기관 237개소에서 보관 중인 혈압계와 체온계, 온도계 등 수은함유 폐기물 848점을 수거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함께 참여해 거점수거한 의료기기 폐기물은 인천 소재 처리업체에서 전량 폐기 처분했다.

2020년 2월 미나타협약(수은제품 8종 제조·수출금지)과 식약처의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금지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업장 등에서 보관 중인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는 올해까지 의무적으로 폐기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처리할 경우 150만원의 수집운반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거점수거를 통해 1건당 6만원으로 95%의 비용 절감효과를 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정신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지역에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업체가 없어 높은 위탁운반비 부담과 배출자 교육, 처리계획서 제출 불편함 등으로 개별 처리율이 낮은 실정이었다"며 "수집·운반비용 절감과 행정절차 이행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로 지역 의료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재난 행동요령' 책자 발간

광주시, 4개국 국어로 제작

광주시는 "재난발생 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대비 시민행동요령'을 책자로 제작·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재난대비 시민행동요령'에는 우리 집 안전점검표, 우리 지역 안전체험시설 등 안전정보를 담고 있으며, ▲비상시 행동요령 ▲생활안전 ▲자연재난 대비 ▲사회재난 대비 요령 등 각종 재난·사고 유형별 안전수칙과 안전장식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지역 거주 외국인의 재난 대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거주 외국인의 국적·비율과 고려인마을 등을 고려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등 4개국어로 별도 제작했다.

'외국어 시민행동요령'은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교육플랫폼에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119신고요령, 화재대피, 소화전 사용 등 생활안전 정보와 태풍·호우·산사태·폭염·대설·지진 등 재난상황별 대응수칙 등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책자를 빛고을국민안전체협관, 주민행복지원센터, 가족센터, 고려인마을지원센터 등에 비치하는 한편 시민 누구나 광주시 누리집에서 책자 파일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건열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시민행동요령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재난안전 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상복 터졌네'

스마트농업 데이터 활용 '대상'

농업인 대학 운영 기관 '최우수'

광주시농업기술센터가 스마트 농업 분야와 전국 농업인 대학 운영 기관 평가 등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19일 광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2023년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경진대회'에서 데이터 활용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또 '전국 농업인대학 운영기관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시농업기술센터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경

진대회'에서 '체계적 데이터 수집 및 자체 개발 모델 현장 보급'을 주제로 서면과 발표 평가를 통해 환경조성, 운영실적, 발전가능성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특히 농촌진흥청의 우수데이터를 활용해 방울토마토 생산량을 51% 향상하고 이를 농업인에 공유했으며, 자체 통합 관제시스템 운영을 통해 72명의 농업인에게 최적의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한 점 등이 좋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전국 농업인대학 운영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빛고을농업대학은 농업인 사전 요구분석에 따른 교

과 편성, 소모임체 학습 등 농업인의 자율성장 역량을 강화하는 운영의 독창성, 내부 강사 활용도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08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빛고을농업대학은 지금까지 1030명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등 전문 농업인 육성에 힘쓰고 있다.

김시라 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빛고을농업대학은 농업인교육의 주축이 되는 과정으로 지역농업의 방향성에 대해 농업인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증진과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장기요양인력 처우개선 최우수기관

복지부 전국 17개 시·도 평가

광주시는 "보건복지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인력 처우개선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우수 지자체 포상과 우수사례 전파로 노인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인정책 장기요양 평가는 우수 노인복지 사례를 발굴하고 신규 정책개발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

해 2021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대상은 17개 시도이며, 평가지표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 운영, 처우개선사업 운영지원의 정량평가와 계획수립 여부, 지자체 협조도 등 정성평가다.

광주시는 2017년부터 '광주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장기요양요원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2021-2023년)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2023년 3개년 '제1기 장기요양요원지원계획'은 처우개선사업 4대 분야 16개 과제를 담아 15개 과제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추진중인 인증제 도입건은 현재 '노인돌봄인력 통합관리체계 구축 TF'에서 논의 중이다.

특히 어르신 돌봄의 일선 현장에서 활약중인 장기요양요원들의 복지증진과 처우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받게 되는 포상금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액 기부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문화체육부 '여가친화인증'

광주도시공사 우수기관 선정



광주도시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 여가친화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근거해 근로자의 일·생활균형(Work&Life Balance)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 및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일과 삶이 양립하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경영전략으로 내세우고, 복리후생 강화와 근무여건 개선, 휴식권 보장, 가정생활 지원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또 자유로운 유연근무·시간연차, 휴양시설(콘도) 운영,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자녀 육아교육·진로설계, 동호회 활동 및 문화관광 지원 제도 등을 시행해 높은 점수를 확보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향장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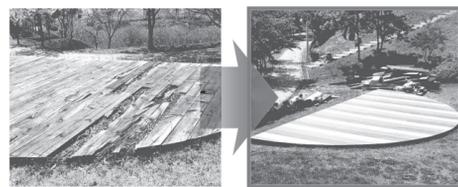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